

#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tress for Nursing Students

박효미\*, 이혜순\*\*

서일대학교 간호과\*,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Hyo-Mi Park(paulina@seoil.ac.kr)\*, Hea-Shoon Lee(lhs7878@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실험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 단일군 전후 실험 설계로 95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4개 영역들(1) 진로 탐색, (2) 자기 이해, (3) 진로 계획 수립 (4) 진로 계획 실천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담, 전문가 특강, 모의면접 및 면접결과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와 ANCOVA로 분석하였다. 진로교육 중재 후 간호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 $t=4.48, p<.011$ )와 진로적응성 점수( $t=3.02, p=.003$ )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진로스트레스 점수( $t=-2.45, p=.015$ )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증가시키고 진로스트레스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과 진로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중심어 : | 진로교육프로그램 | 진로자기효능감 | 진로적응성 | 진로스트레스 |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tress among nursing student. Methods: A one-group, pre-post design was utilized with 95 nursing students as subjects.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was consisted of four domains((1) Career exploration, (2) Self understanding, (3) Establishment of career planning (4) Practice of career planning) and included counselling, special lectures, simulated job interview, and feedback of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s, ANCOVA(SPSS 20.0). Results: The scores on the factors of career self-efficacy( $t=4.48, p<.011$ ) and career adaptability( $t=3.02, p=.003$ )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education intervention. The score of career stress( $t=-2.45, p=.015$ ) decreased significantly. Career education program is useful in improvi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tress in nursing students. Conclusions: Th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there needs mor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areer education program.

■ keyword : | Career Education Program | Career Self-efficacy | Career Adaptability | Career Stress |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Research Grant of Seoil University in 2013"

접수일자 : 2015년 06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18일

수정일자 : 2015년 07월 06일

교신저자 : 이혜순, e-mail : lhs7878@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위한 진로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경제적 자립이자 자아실현이며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1]. 그러나 오늘날 대학 졸업자의 취업여건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어려운 수준이며 이에 취업예정자의 취업 가능성 또한 어려워지는 실정이다[2].

통계청[3]보고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4년 58.6%이며 이는 2013년 대비 0.7% 포인트 감소하였고 전체 실업률은 3.5%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 포인트 늘어 9.0%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4], 다른 전공에 비해 비교적 취업률이 높았던 간호대학생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최근 계속 증원되고 있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으로 인해 졸업생이 증가하면서 신규간호사 수가 2004년 10,739명에서 2014년 15,458명으로 10년 사이 1.5배 정도 급증하여[5],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자기효능감은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로[6],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고[7],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진로적응성은 직업적 요구에 적응하고 그 직업이 개인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직업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직무 및 직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정도를 의미하며[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10].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대학입시만을 목표로 하여 자신의 관심영역이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맞는 학과나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11], 간호

대학생의 경우도 전공 선택 시기가 수능 이후 50.3%, 고등학교 3학년 3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입학동기 또한 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경우가 10~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이 진로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부족한 상태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므로 본격적인 구직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해야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부족한 상태로 전공을 선택하고[12],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특성 때문에 대학생들 중 진로 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오히려 부족하므로[13], 취업을 앞두고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취업 후에도 직업에 대한 혼돈과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져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나 적응 결여로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14].

그러므로 올바른 간호전문직업관 확립과 본격적인 구직단계에 있는 간호학생들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일반 대학생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을 취업정보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보처리 중심의 진로상담[15], 진로의사결정상담프로그램[16], 진로집단상담[17], 진로탐색[18], MBTI검사, Holland검사를 포함한 진로교육 프로그램[19] 등이 대부분 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진로교육 관련연구는 진로태도성숙 영향요인[13],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14],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1],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20] 등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요인으로 장기적 경기침체, 불확실한 미래 및 치열한 취업경쟁률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적응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9][10].

그러므로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들인 진로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진로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2)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실험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며,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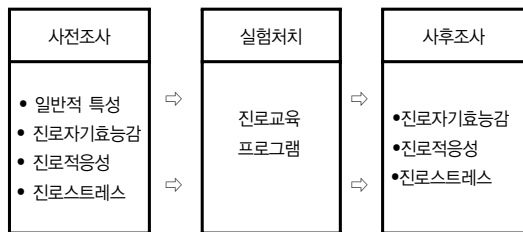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설계

###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Faul, Erdfelder, Lang과 Buchner[21]의 G\*Power version 3.1.2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power) .80, 중간효과크기(effect size) .30으로 설정할 때 요구되는 대상자수는 86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102명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포기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7명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95명(93.1%)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진로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생애 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이영대 등[22]의 연구에서 본격적인 구직단계에 있는 대학생의 진로교육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진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간호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졸업 직후 국내 임상 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므로[1], 연구대상자 스스로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졸업학년이므로 진로계획 실천영역에서는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담당하는 관련전문가의 모의면접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진로탐색 영역에서는 임상에서 간호사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진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근무 분야를 검토하고 신규간호사 채용동향 및 취업 관련 정보 활용 방법을 탐색하였다.

자기이해 영역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대학이 제공하는 온라인 검사인 진로탐색검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담 관련 교육을 받고 학생 상담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과 보조 연구원 1인이 연구대상자를 9개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 해석 및 자기이해를 심

화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실시한 온라인 진로탐색검사는 대학생의 진로계획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검사로, 검사 결과는 개인의 직무수행 스타일을 대인관계 측면에서 대인 선호와 독립 선호 정도를, 문제해결 접근 측면에서 직감 지향과 분석 지향 정도를, 관심 지속성 측면에서 새경험 선호와 예측 선호 정도를, 감정표현방식 측면에서 외향적 감정표현과 내향적 감정표현 정도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직무수행 스타일의 해석 결과를 제시해 줌으로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 온라인 진로탐색검사 결과지를 함께 검토해 보면서 연구대상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여 연구대상자의 자기이해를 심화하였다.

진로계획 수립영역에서는 연구대상자 스스로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병원의 이념, 간호부의 미션 및 신규간호사 채용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자별로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지원할 병원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진로계획 실천영역에서는 입사서류 작성 전략 습득,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입사서류 교정, 모의면접 실시 및 면접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업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입사서류 작성 전략을 습득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직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연구자 2인과 보조연구원 1인이 연구대상자 별로

검토 및 첨삭하고 피드백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재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담당하는 종합병원 간호부장 4인이 참여하여 연구대상자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모의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후 그룹별 면접 결과 분석을 연구대상자들에게 피드백하였다. 모의면접의 운영 절차, 방법 및 시간은 모의면접에 참여 할 간호부장들과 사전 협의하였고 모의면접에 사용할 면접 질문지와 채점표 등도 연구자들과 면접에 참여하는 간호부장 4인이 함께 검토하여 작성·활용하였다.

실험처치 전 진료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내용 및 운영방법의 적절성은 간호대학생 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 교수 3인이 검토하였고, 모의면접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은 간호실무현장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대학부속 종합병원 간호부장 4인이 검토하였다[표 1].

### 3.2 온라인 진로탐색검사

온라인 진로탐색검사는 A대학교[23]가 (주)휴노컨설팅에 의뢰하여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고 본 도구는 대인선호, 독립선호, 직감지향, 분석지향, 새경험선호, 예측선호, 외향감정표현 및 내향감정표현 등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대인선호 Cronbach's  $\alpha$  .71, 독립선호 .79, 직감지향 .80, 분석지향 .70, 새경험선호 .77, 예측선호 .72, 외향감정표현 .77 및 내향감정표현 .73이었다.

표 1. 진료교육 프로그램

영역	내용	방법	소요시간	시행 주차	코디네이터	
1	진로탐색 영역 • 진로정보의 중요성 인식 • 진로정보의 적용 • 간호사의 진로 탐색	특강	90분	1주	간호부장	
2	자기이해 영역 • 진로탐색검사 & 결과 해석 • 자기이해 심화	온라인 집단상담 (9그룹)	30분 60분/그룹	1주 2~3주	연구대상자 연구자	
3	진로계획 수립 영역 • 병원탐색 • 지원 계획 수립	웹서핑 -	- -	2~3주	연구대상자	
4	진로계획 실천 영역 • 모의면접 • 모의면접 평가	• 입사서류 작성법	특강	60분	4주	취업전문가
		•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	-	4주	연구대상자
		•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피드백	-	-	4~5주	연구자
		• 모의면접	인터뷰	15~20분 /3명	5주	간호부장 (4명)
		그룹별 피드백	60분			

### 3.3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자기효능감 측정은 Betz와 Vuyten[24]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이은진[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하위영역 당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평가 .79, 직업정보수집 .78, 목표설정 .83, 계획수립 .72 및 문제해결 .82였다.

### 3.4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 측정은 장계영[9]이 개발한 진로적응성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이 미래의 변화를 대처하고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자신의 능력, 새로운 직무 책임들에 대한 수용의 정도, 예상 불가능한 사건들이 진로계획을 변화시킬 때 회복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 3.5 진로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 측정은 황성원[25]의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김동조[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진로 탐색, 결정,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프로그램 참여 전 사전조사에서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 특성,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실험 처치)은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5주 동안 진행 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후 사후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 차이는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 처리하고 사후 검사 점수만으로 ANCOVA로 분석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게시물을 보고 신청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프로그램 진행과정, 시기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안 설명은 부호화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생활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둘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부재로 진로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조군을 포함한 연구로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연구자, 외부특강자 및 집단리더 없이 피험자가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등 지나치게 다양한 실험자 변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졸업예정인 3학년으로 평균 연령은 22.09세이며, 남학생 15.8%, 여학생 84.2%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경험이 없음 58.9%, 있음 41.1%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이 없음 40.0%, 정규직 10.5%, 시간제 49.5%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5)

변수	범주	n (%)	Mean±SD
나이			22.09±2.45
성별	남학생	15 (15.8)	
	여학생	80 (84.2)	
진로교육 경험	없음	56 (58.9)	
	있음	39 (41.1)	
취업 경험	정규직 근무	10 (10.5)	
	시간제 근무	47 (49.5)	

#### 2. 대상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 차이

대상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 진로자기효능감 총점평균은 3.45점, 진로적응성 평균은 3.65점, 진로스트레스 평균은 3.04점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진로자기효능감 총점평균은 3.75점, 진로적응성 평균은 3.89점, 진로스트레스 평균은 2.79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자기효능감 총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과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4.48, p<.001$ ), 진로자기효능감의 하부요인 중 자기평가( $t=3.23, p=.001$ ), 직업정보수집( $t=3.09, p=.002$ ),

목표설정( $t=4.73, p<.001$ ), 계획수립( $t=3.35, p=.001$ ), 문제해결( $t=3.91,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적응성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과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2, p=.003$ ).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과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5, p=.003$ )[표 3].

표 3. 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의 차이 (N=95)

변수	전 Mean±SD	후 Mean±SD	t	p
진로자기효능감(총점)	3.45±0.44	3.75±0.46	4.48	<.001
자기평가	3.51±0.55	3.76±0.49	3.23	.001
직업정보수집	3.60±0.59	3.87±0.57	3.09	.002
목표 수립	3.35±0.56	3.78±0.67	4.73	<.001
계획	3.20±0.58	3.46±0.50	3.35	.001
문제해결	3.60±0.51	3.89±0.50	3.91	<.001
진로적응성	3.65±0.50	3.89±0.59	3.02	.003
진로스트레스	3.04±0.69	2.79±0.72	-2.45	.015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 차이

대상자의 진로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F=2.32, p=.022$ )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적응성은 성별, 진로교육경험, 취업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교육경험이 '없음'인 경우 '있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F=2.28, p=.024$ )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 차이 (N=95)

변수	범주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Mean±SD	F (p)	Mean±SD	F (p)	Mean±SD	F (p)
성별	남학생	3.99±0.49	2.32	4.13±0.57	1.72	2.59±0.97	1.17
	여학생	3.70±0.44	(.022)	3.85±0.59	(.088)	2.82±0.66	(.245)
진로교육 경험	없음	3.66±0.54	0.91	3.85±0.54	1.35	3.12±0.77	2.28
	있음	3.77±0.44	(.364)	4.06±0.77	(.176)	2.70±0.69	(.024)
취업 경험	없음	3.76±0.44	0.03	3.84±0.66	1.80	2.88±0.65	0.74
	정규직 근무	3.74±0.52	(.975)	4.18±0.64	(.171)	2.60±0.74	(.480)
	시시간제 근무	3.74±0.47		3.85±0.51		2.76±0.68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졸업 예정 간호대학생에게 전공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인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은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본 연구결과는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김영희[26]의 연구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허정철[2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적응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대리학습에 따른 진로적응성을 분석한 차희정[28]의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스트레스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본 연구결과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Holland - Career Identity Program: H-CIP)이 대학생의 진로정체성, 진로결정수준 향상 및 취업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정보애[29]의 연구결과와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취업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김영희[2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진로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한 장야린[30]의 연구에서도 재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0회의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진로스트레스를 프로그램 적용 직후 뿐 아니라 추후에도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조성연, 홍자영[31]의 연구와 유사하나 본 연구에서도 성

별간 집단 수의 차이가 커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추후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적응성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높게 검증된 김수정[32]의 연구와 성별 차이에 따라 진로적응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조성연, 홍자영[31]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은 대학생의 성별, 진로교육경험, 취업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남학생 15.8%, 여학생 84.2%로 남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남녀의 수가 비교적 동등한 그룹간의 진로적응성 비교연구가 추후에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교육경험, 취업경험에 따른 진로적응성 차이를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진로스트레스 효과를 검증하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는 성별이나 취업경험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취업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진로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격적인 구직단계에 있는 간호대학생 중 실제 구직단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취업정보 부족, 구직기술 부족, 자격 및 능력 부족, 의사결정의 어려움 및 중요한 타인의 기대 등의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취업 불안[33]이 높은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공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선행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도 진로교육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공을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나, 추후에는 학년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에는 자기이해나 긍정

적인 자아개념 확립에 중점을 두게 되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진로탐색 및 진로정보의 활용이나 진로계획 수립에, 졸업예정 대학생의 경우에는 진로 계획 실천에 중점을 두고 진로교육 실시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간호대학 졸업생의 안정적인 취업과 비교적 높은 취업률의 직업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간호대학 내 남학생들을 고려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교육 요구를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전공을 반영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방경숙, 조진경, “일개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88-97, 2008.

[2] 조혜정, 백지숙, “대학생을 위한 단계별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제5권, 제2호, pp.87-97, 2007.

[3] 통계청,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청, 2014. <http://www.index.go.kr/potal/enarIdx/idxField/userPageCh.do>

[4] 김동조, *신학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학교생활, 진로와 취업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합격률 추이*, 대한간호협회, 2014.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be\\_nurse.php](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be_nurse.php)

[6] 이은진,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7] N. L. Jimmieson, “Employee reactions to behavioral control under conditions of stress: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Work & Stress: Int J Work, Health & Organisations*, Vol.14, No.3, pp.262-280, 2000.

[8] 조형래, *진로교육 운영방법이 대학생 진로태도 및 진로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 장계영,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0] 서유진,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유선미, *대학생의 성패구인 유형과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2]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5권, 제6호, pp.1091-1100, 2005.

[13]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383-391, 2004.

[14] 박순주, “진로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59-267, 2012.

[15] 이형국, “진로상담 : 인지적 정보처리접근 중심 대학생 진로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pp.701-720, 2010.

[16] 김지영,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7] 정연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8] 김현수, 장기명, 이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



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pp.261-278, 2004.

[19] 이상열, *진로집단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와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0] 이상희,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제3호, pp.1461-1479, 2012.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2007.

[22] 이영대, 임언, 이지영, 최동선, 김나라,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4.

[23] 서일대학교, 온라인 진로탐색검사, 2013. <http://su.seoil.ac.kr/Career/TestListJTU.aspx>

[24] N. E. Betz and K. K. Vu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3, pp.179-189, 1997.

[25] 황성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6] 김영희,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학사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17-828.

[27]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8] 차희정, *대학생의 진로대리학습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9] 정보애, *H-CIP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취업불안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0] 정야린, *진로 행복훈련이 재한 중국학생들의 취업불안과 취업스트레스,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1] 조성연, 홍지영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제11권, 제3호, pp.1099-1115, 2010.

[32] 김수정, *문화적 자기, 성격유형, 직업가치유형에 따른 진로적응성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3] 서지윤,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불안과 취업처 선정 기준 간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저 자 소 개

박 효 미(Hyo-Mi Park)

정희원



- 1988년 : 고려대학교 의과대 간호학과(학사)
- 1993년 : 고려대학교 간호학 과(석사)
- 2000년 : 가톨릭대학교 간호 학과(박사)

▪ 1997년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 노인, 스트레스, 삶의 질, 자아존중감

이 혜 순(Hea-Shoon Lee)

정희원



- 1988년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학사)
- 1996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07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3년 ~ 현재 :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